

정읍시, 임산물 6차 산업 육성 나섰다

내장산문화광장 인근에 50억 투입 임산물 체험단지 조성 4월부터 운영 먹거리 판매하고 치유 공간 제공



정읍 임산물 체험단지는 임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판매와 다채로운 힐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내장산문화광장 인근에 지리한 임산물 체험단지. <정읍시 제공>

“임산물 체험단지에서 힐링하세요.” 정읍시가 청정 임산물을 이용한 6차 산업화로 지역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23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내장산문화광장 인근(쌍암동 541번지)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임산물 체험단지를 조성하고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임산물 체험단지는 임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판매와 다채로운 힐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임산물을 활용한 특화제품 개발과 임산물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다.

임산물 체험단지 내 주요시설은 차향 다원과 차향 문화관, 임산물 향기 온실, 목재 문화체험관 등으로 구성됐다.

차향 다원에서는 정읍 임산물을 활용한 임유제와 차 제품을 이용한 즉석 카페가 운영되며,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차향 문화관에서는 임산물 치를 활용한 다도 체험과 야생꽃차 만들기, 임산물 먹거리 만들기 등

임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하다. 또 임산물 향기 온실에는 사계절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나는 갖가지 허브와 방향식물 등을 식재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자연 치유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시는 임산물체험단지가 주변 관광지인 내장산 국립공원과 국민여가캠핑장, 천사하이로드 등과

함께 내장산 통합관광 구성에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임산물을 통한 힐링뿐 아니라 정읍 청정 임산물의 가치를 드높일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펼쳐볼 수 있는 체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s@

군산시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바우처 제공

군산시가 저소득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여름철엔 전기요금, 겨울철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에 노인(1956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5년 1월1일 이후 출생),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주

민등록표상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9만6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가구 19만10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올해 신규대상자는 1235명으로 2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전년도 대상자 중 정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고창군, 고창읍성 일대 생태휴식공간 조성

70억원 들여 내년말까지 완료

고창군이 올해 고창읍성 일원의 단절된 주요 생물서식지를 연결하는 명품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관련 토지매입비 40억원과 사업비 70억원(국비 70%)이 확보돼 올 상반기 부지내 토지와 실농, 지장물, 분묘 보상 등이 마무리된다.

이어 연말까지 인허가 절차와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기반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다. 고창읍 남북 산림생태축은 주변에 개설된 도로(노동로)로 인해 도시생태

계의 연속성이 끊어져 왔다.

이에 군은 녹지연결로, 생태습지, 탄소저감숲, 생물서식공간, 자연관찰로 설치사업 등을 진행해 군민에게 최상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생태축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산림 연결성 강화를 통한 도시 생태계 연속성 회복, 생태적 기능 향상을 통한 도시 생물종다양성 증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고창자연마당조성사업과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 등이 연계되면 자연 친화도시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라 기대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만의 숨은 보석’으로 최종 선정된 최고령 느티나무(왼쪽)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간이역 촌포역.



인물·자연·행정 등 11개 분야 ‘익산의 숨은 보석’ 98선 선정

암산 세계 챔피언·최고령 느티나무 등

익산시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자랑거리, 다양한 분야의 최고기록을 보유한 인물로 구성된 ‘익산만의 숨은 보석’이 선정됐다.

익산시는 시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한 ‘익산만의 숨은 보석’ 98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익산만의 숨은 보석’은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잠재적 가치가 충분한 대상을 발굴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민공모와 자체 발굴을 통해 320건이 수집됐다.

이를 토대로 현지조사, 자료에 대한 정밀 검증과 선정 심사위원회,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98선을 선정했다.

숨은 보석은 인물, 자연·환경, 문화·체육·예술,

행정, 산업·경제, 건설·교통, 건축, 교육·복지, 농축산물, 기타 등 10개 분야로 나눠 선정됐다.

인물 분야는 전북 최초 아너소사이어티 패밀리 임속현씨 가족, 익산 최고령 이발사 김명수씨(89세), 암산 세계 챔피언 김건군(암산 7단, 17세) 등 15명이다.

자연·환경 분야는 익산 최고령 느티나무(수령 600년 추정), 옹포 구룡목마을 차밭(최북단 야생차 군락지) 등 8건, 문화·체육·예술 분야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지(이승원 생원 백패교지) 등 21건, 행정분야는 전북 최초 한옥도서관(금마도서관) 등 3건이 선정됐다.

산업·경제 분야는 익산 유일의 체험형 동물농장(액션하우스) 등 22건,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익산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1984년식 포니) 등 2건, 건축 분야는 대한민국 가장 오래된 역사(춘포

역) 등 13건, 교육·복지 분야는 익산 최초 초등학교(함라초교) 등 5건, 기타 분야에서는 60년 연속 환경정비 하는 마을(망성 리암마을) 등 9건이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숨은 보석에 대해 전문가의 현지 인터뷰와 스토리텔링을 거쳐 익산만의 숨은 보석 책자를 발간했으며 이달 중 지역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배부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또 웹 카드뉴스 등 대상별 맞춤형 활용 콘텐츠를 개발해 익산을 알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선정된 숨은 보석을 통해 시민들이 내 고장을 좀 더 세심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익산의 매력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숨은 보석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순창산 커피’ 첫 수확...고급화 전략 모색

순창군이 순창산 커피를 첫 수확하고 고급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순창읍 복실리 과학영농실증포에서 순창산 커피의 올해 첫 수확에 들어갔다.

이날 과학영농실증포에 모인 관계자 5명은 커피 나무에 열린 열매를 비저망을 흘려가며 하나씩 정성스럽게 따다.

수확된 커피원두는 전량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보내져 커피 가공품 개발에 쓰일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16년 기후변화에 대비해 현대인의

기호성을 반영한 커피 재배를 시작했다.

현재 과학영농실증포에서는 커피 중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아라비카종인 ‘크리스탈 마운틴’과 ‘만델리’ 품종이 각각 200주와 130주가 재배되고 있다. ‘크리스탈 마운틴’과 ‘만델리’ 품종을 각각 화분과 토경에서 재배하면서 지역적응성을 검증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커피재배의 기술력을 높이고자 커피 발아시험을 진행해 추계 원예학회지에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지난 21일 순창읍 복실리 과학영농실증포에서 커피 재배농가가 커피나무 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